



가야사와 가야불교사 인식의 새 지평을 위해서

For the new horizon in the recognition on the Gaya History and its Buddhism History

저자
(Authors) 이덕일
Lee, Deok-Il

출처
(Source) [역사와융합](#) , (8), 2021.6, 7-40 (34 pages)

발행처
(Publisher) [바른역사학술원](#)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68137>

APA Style 이덕일 (2021). 가야사와 가야불교사 인식의 새 지평을 위해서. 역사와융합, (8), 7-4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2/15 10: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역사와융합』 제8집(2021. 6)

가야사와 가야불교사 인식의 새 지평을 위해서

이 덕 일¹⁾

차 례

1. 들어가는 글
2. 가야건국시기에 대한 주장들
3. 북한은 가야 건국을 어떻게 보나
4. 가야는 임나인가?
5. 고구려, 백제 불교전래 기사의 의문점들
6. 가야 불교 전래시기
7. 나가는 글

【국문초록】

현재 한국의 가야사 인식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가야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것은 대일항전기 때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가야에 대한 사료가 부족한 것을 기회 삼아 『일본서기』에 나온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해서 고대 야마토왜의 식민지가 가야였다는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었다. 광복 후 일본인 학자들의 이런 연구에 대해서 한국(남한) 학계는 총론으로는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고 비판하는 척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임나=가야’라는 임나일본부설의 핵심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북한 학계는

1) 순천향대 대학원 초빙교수 ·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newhis19@hanmail.net

1963년 김석형이 분국설을 제창하면서 형식적, 내용적인 면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완전히 폐기시켰다.

그 결과 남북한의 가야사 인식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학계는 『삼국유사』 「가락국기」 및 『삼국사기』 등의 문헌자료와 옛 가야 지역의 각종 고고학 유적, 유물을 가지고 가야 건국시기를 서기 1세기로 인식하지만 남한 학계는 가야가 서기 3세기 경에 건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야사 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는 가야불교사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452년 왕후사를 세웠다는 기록을 가야불교의 전래시기라고 해석하지만 이는 가야에서 왕실사찰을 세웠다는 기록이지 가야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허왕후가 서기 48년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오면서 가져온 파사석탑은 가야불교의 전래시기를 5세기 중엽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삼국사기』의 고구려·백제 불교전래에 관한 기록은 대승불교의 전래기록인데, 최치원이 쓴 「지증대사탑비」에는 대승불교보다 소승불교가 먼저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과거의 가야사 해석, 특히 대일항전기 때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고정된 가야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가야 건국시기, 임나일본부설, 임나=가야설, 분국설, 가야불교, 지증대사탑비

1. 들어가는 글

가야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과 가야사를 전공했다는 역사학자들 사이의 인식의 괴리는 크다. 먼저 건국시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다르다. 일반 국민들은 가야가 서기 42년에 건국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후한(後漢)의 세조(世祖) 광무제(光武帝) 건

무(建武) 18년 임인(서기 42) 3월²⁾에 건국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도 수로왕이 서기 42년에 건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³⁾

그러나 역사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강단사학자들은 이 기사를 믿지 않는다. 이들의 가야 건국시기에 대한 견해를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가야’ 관련 기술로 살펴보자. 먼저 가야에 대한 ‘정의’에서는 “서기전 1세기부터 서기 6세기 중엽까지 주로 경상남도 대부분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영유하고 있던 고대 국가”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정의’는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의 가야 관련 사료에 부합한다. 그러나 본문에 들어가면 정의와는 다른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다.

“가야는 변한의 12소국, 소국 연맹체, 초기 고대 국가 등의 단계를 거쳤다. 서기전 1세기 낙동강 유역에 세형(細形)동검 관련 청동기 및 초기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가야의 문화 기반이 성립되었다. 서기 2세기경에는 이 지역에 소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3세기에는 12개의 변한 소국들이 성립되었으며, 그 중에 김해의 구야국(狗邪國: 金官加耶)이 문화 중심으로서 가장 발전된 면모를 보였다.”⁵⁾

‘본문’은 가야에 대한 ‘정의’의 내용을 부연해야 하는 것은 사전의 기본이다. 따라서 ‘본문’에는 ‘정의’에 이어 가야가 ‘서기 1세기에 건국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작 서기 2세기경에 소국들이 나타나 3세기에 12개의 변한소국이 성립

2) 『삼국유사』 「가락국기」, “後漢世祖光正帝建正十八年壬寅三月”

3)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峰,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加耶, 後改爲金官國.”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야 조.

5) 위의 책, 가야 조.

되었다는 것이다.

가야는 3세기 이후에나 건국되었다는 것이다. 서론과 본론의 내용이 다른 것은 가야뿐만이 아니다. 아주 많은 서술에서 한국 대학의 사학과를 장악하고 있는 강단사학은 서론과 본론이 다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가야가 서기 1세기 건국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3세기 이후에 건국되었다고 달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의 이런 가야 건국사 인식은 사료와 아주 다르다. 사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역사학의 기본방법론에도 위배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인식이 가야와 관련된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가야불교다. 가야의 불교 전래시기에 대해서 한국 강단사학계는 대체로 서기 452년으로 인식하고 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질지왕」 조에도 김수로왕의 8대손인 김질왕이 세조모 허황후를 위해서 원가(元嘉) 29년(452)에 김수로왕과 허황후가 혼인한 곳에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왕후사(王后寺)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⁶⁾ 이를 근거로 가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을 서기 452년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야 왕실에서 시조모를 기리는 사찰을 창건했다는 기록이지 가야에 불교가 처음 전해졌다는 기록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가야가 서기 3세기에나 건국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야 불교가 이보다 이른 시기에 전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가야 1세기 건국설을 말하는 『삼국유사』 「가락국기」나 허황후가 아유타국에서 가져왔다는 「금관성 파사석탑」의 기사를 가짜로 몰게 된다. 문제는 이런 인식들이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 조직적으로 만들어 퍼뜨린 식민사학의 주요 논리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가야사에 대한 식민사학의 큰 틀 내에 가야불교사에 대한 인식도 준

6) 『삼국유사』 「가락국기」 「질지왕」 조 “一云金銍王。元嘉二十八年即位。明年爲世祖許黃玉王后奉資冥福。於初與世祖合御之地創寺曰王后寺”

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강단사학계에서 인식하는 가야불교 전래시기가 옳은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이들의 가야사 인식이 사료에 부합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가야불교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려면 먼저 가야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올바른 인식이란 사료에 기반한 인식을 뜻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가야불교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작성되었다.

2. 가야건국시기에 대한 주장들

가야 건국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7-삼국의 정치와 사회Ⅲ-신라·가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홍익대 김태식 교수의 글이다.

“가락국의 존재는 3세기 중엽 이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삼국지』 위서 한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곳에 변진 12국의 하나로서 「狗邪國」 즉 가야국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景初中(237~239)에 魏 明帝가 樂浪·帶方太守를 통하여 諸韓國臣智에게 邑君·邑長의 印綬를 주는 과정과 관련하여 파악된 것으로 본다면, 그 중의 하나인 구야국의 성립은 3세기 전반을 하한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3세기 전반의 구야국은 당시의 辰王의 공식 칭호에 聯名되는 등 이미 변진 12국 중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국가세력의 정상적인 발전과정을 감안할 때 구야국의 성립 시기는 늦어도 2세기 후반 이전으로 올려 보아야 할 것이다.”⁷⁾

김태식은가락국의 존재를 『삼국지』 「위서」 '한(韓)전' 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서 《삼국지》의 구야국(狗邪國)을 가야국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7) 김태식, '가야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7-삼국의 정치와 사회Ⅲ-신라·가야』, 321쪽.

서 구야국의 성립은 3세기 전반이 하한인데, 2세기 후반 이전에는 구야국이 성립되었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 문장 앞에서 “『신라본기』를 중심으로 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편년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와 밀접한 연관 아래 작성된 『가락국기』의 가야 왕력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⁸⁾ 라고 말했다. 『삼국사기』 초기기록이 가짜라는 인식이다. 이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임나=가야설’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논리인데, 이를 그대로 따르면서 『삼국사기』 초기기록이 가짜니 『삼국유사』 『가락국기』도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가 『삼국사기』를 가짜로 모는 논리는 박제상(朴堤上)에 대한 기술이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와 「박제상 열전」이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놀지마립간 2년(418) “왕의 동생 복호(卜好)가 고구려에서 나마(奈麻) 제상(堤上)과 함께 돌아왔다.”⁹⁾ 고 말하고 있다. 『삼국사기』 「박제상 열전」은 “박제상-혹은 모말(毛末)이라고 한다-은 시조 혁거세의 후손이고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의 5세손이다. 할아버지는 아도(阿道) 갈문왕(葛文王)이고, 아버지는 파진찬(波珍滄) 물품(勿品)이다.”¹⁰⁾ 라고 되어 있다. 김태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기에서 5세기 전반 신라 놀지왕(訥祗王) 때의 인물인 박제상이 열전에는 2세기 전후한 시기에 재위한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의 5세손으로 되어있다”¹¹⁾ 는 것을 「가락국기」 가야왕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논거로 삼았다. 2세기 전후한 인물의 5세손이라면 5세기 전반의 인물이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또한 김태식은 “열전에서 박제상의 조부라는 아도갈문왕(阿道葛文王)이 「신라본기」에서는 일성이사금(逸聖尼師今) 15년(148)에 갈문왕으로 봉해진 기사”가 나온

8) 위의 책, 320쪽.

9) 『삼국사기』 「신라본기」 '놀지마립간' “二年, 春正月, 親謁始祖廟. 王弟卜好自高句麗與堤上奈麻還來.”

10) 『삼국사기』 「박제상 열전」 “朴堤上 或云毛末, 始祖赫居世之後, 婆娑尼師今五世孫. 祖阿道葛文王, 父勿品波珍滄.”

11) 김태식, 앞의 책, 320쪽.

다¹²⁾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김태식은 “박제상의 가계에 문제가 없다면 신라본기 초기 왕력 편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¹³⁾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가짜로 몰았다. 김태식이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가짜로 모는 논리는 두 가지다. 박제상은 5세기 전반 눌지왕 때 인물인데 2세기 무렵에 생존했던 파사이사금의 5세손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박제상의 조부인 아도갈문왕이 일성이사금 때 갈문왕으로 봉해졌다는 것이다. 즉, 박제상과 그 가계에 대한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박제상 열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가짜로 모는 논리의 주요 골자다.

그런데 『삼국사기』 「일성 이사금조」는 “15년(148)에 박아도(朴阿道)를 갈문왕(葛文王)으로 봉했다”¹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 대해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신라에서는 추봉(追封)한 왕을 모두 갈문왕이라고 칭하였다. 그 의미는 자세하지 않다.”¹⁵⁾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 「제1 기이」는 ‘내물왕 김제상’ 조에서 제상의 성을 김씨라고 말하고 있다.¹⁶⁾ 『삼국사기』 「일성 이사금조」의 박아도가 과연 제상의 조부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일성이사금조」의 박아도를 「박제상 열전」의 아도갈문왕을 같은 인물로 인식했는지는 불분명하다.¹⁷⁾ 그러나 김태식은 “박제상의 가계에 문제가 없다면 신라본기 초기 왕력 편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¹⁸⁾라고 결론지었다. 「신라본기」와 「박제상 열전」의 내용이 다르면 두 기록이 왜 다른지, 어느 것이 더 신빙성

12) 위의 책, 320쪽.

13) 위의 책, 320쪽.

14) 『삼국사기』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十五年, 封朴阿道爲葛文王."

15) 위의 책, 일성이사금 "新羅追封王皆稱葛文王, 其義未詳."

16) 『삼국유사』 卷一, 奈勿王 金提上

17) 박제상의 조부가 아도갈문왕이었다는 기록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견해가 김용선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용선, 「박제상소고」, 『김해중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1979, 605쪽.

18) 김태식, 앞의 책, 320쪽.

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박제상의 가계에 문제가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놓고 「신라본기」를 믿을 수 없다고 단정 지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가짜로 몰아야 『삼국유사』 「가락국기」도 가짜로 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박제상 열전」 사이의 일부 불일치를 근거로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가짜로 몰수도 없고, 가야가 서기 1세기에 건국했다는 건국시기를 부인할 수도 없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가야가 1세기에 건국했다는 수많은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은 김유신의 가계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김유신은 왕경(王京)사람이다. 그 12세 조상 김수로는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후한(後漢) 건무(建武) 18년(서기 42) 임인에…나라를 열고 국호를 가야라고 했는데, 뒤에 금관국으로 고쳤다.”¹⁹⁾

『삼국유사』 「가락국기」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도 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되었다고 같이 말하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 「탈해이사금」 21년(서기 77)조는 “(신라의) 아찬 길문이 황산진(黃山津) 입구에서 가야 군사와 싸워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²⁰⁾라고 기록하고 있다. 서기 77년 가야와 신라는 격전을 전개했다. 신라의 파사이사금이 재위 8년(87) 내린 명령도 1세기에 가야가 신라의 위협으로 고심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19)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金庾信, 王京人也. 十二世祖首露, 不知何許人也. 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峰,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加耶, 後改爲金官國.”

20) 『삼국사기』 「탈해이사금」 21년조, “二十一年, 秋八月, 阿滄吉門與加耶兵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以吉門爲波珍滄, 賞功也.”

「파사이사금 8년(87) 가을 7월에 영을 내려 말하기를, “짐(朕)이 부덕한데도 이 나라를 갖고 있는데 서쪽은 백제(百濟)와 이웃하고 남쪽은 가야(加耶)와 접해 있다. 덕은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없고, 위엄은 이웃 나라를 두렵게 하기에 부족하다. 마땅히 성벽과 보루를 잘 수리하여 침략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이 달에 가소성(加召城)과 마두성(馬頭城)의 두 성을 축조하였다.»²¹⁾

신라의 파사이사금은 서쪽의 백제와 남쪽의 가야가 공격할 것을 우려하면서 가소성과 마두성을 쌓아 막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소성에 대해 경남 거창군 동쪽 가소면 일대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인제대의 이영식은 가소성이 경남 거창에 있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경주 남쪽 방면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²²⁾ 마두성에 대해서도 이병도는 거창군 마리(馬利)면 지역에 있었던 것²³⁾으로 보는 반면 이영식은 경북 청도군과 경주시, 경산시 접경에 있는 마곡산(馬谷山) 일대로 보고 있다.²⁴⁾ 구체적인 사료적 근거가 있는 위치비정이 아니라 이 당시 신라는 경주 일대만 차지하고 있던 소국이었다는 전제 아래 비정한 자의 적 논리들이다.

파사이사금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어서 재위 15년(94) 봄 2월에 가야군사가 마두성을 포위하자 아찬(阿飡) 길원(吉元)에게 기병 1천 명을 이끌고 격퇴하게 했다.²⁵⁾ 『삼국사기』는 '파사이사금' 17년(96)조에 가야와 신라의 전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기록을 남겼다.

21) 『삼국사기』 '파사이사금' 8년 조, 八年, 秋七月, 下令曰, “朕以不德有此國家, 西鄰百濟, 南接加耶. 德不能綏, 威不足畏. 宜繕葺城壘, 以待侵軼.” 是月, 築加召·馬頭二城

22) 이영식, 「加耶諸國의 國家形成 問題」, 『白山學報』 32, 1985, 71~72쪽

23) 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1977, 乙酉文化社, 15쪽.

24) 이영식, 앞의 책, 71~72쪽

25) 『삼국사기』 '파사이사금' 15년 조, “加耶賊圍馬頭城. 遣阿飡吉元, 將騎一千擊走之.”

“9월에 가야인들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니 가성주(加城主) 장세(長世)를 보내 막게 했는데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 왕이 노해서 용사(勇士) 5천을 이끌고 출전하여 패배시키고 포로로 잡은 자가 아주 많았다(『삼국사기』 신라 파사이사금 17년).” 위의 책, '파사이사금' 17년 조, “加耶人襲南鄙. 遣加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 率勇士五千, 出戰敗之, 虜獲甚多.”²⁶⁾

이 기사는 짤막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6하 원칙에 다 들어맞는다. 그 후속기사도 마찬가지다. 가야의 잇단 공격을 받은 신라 파사이사금은 이듬해 정월에 가야정벌에 나서려 했다. '파사이사금' 18년 조는 “18년(97) 봄 정월에 군사를 일으켜 가야를 정벌하고자 하자 그 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 죄를 청하므로 그만두었다.”²⁷⁾ 는 것이다. 『삼국사기』 '파사이사금' 23년(102)조는 김수로왕이 직접 등장한다.

「23년(102) 가을 8월에 음즙벌국(音汁伐國)과 실직곡국(悉直谷國)이 영토를 다투다가 (파사)왕에게 와서 결정해달라고 청하였다. 왕이 어렵게 여겨서 이 르기를 “금관국의 수로왕이 연로하여 지식이 많다.”면서 불려서 물었다. 수로왕이 의견을 내어 다투는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²⁸⁾

이처럼 서기 102년 당시 김수로가 금관국의 왕으로 있었던 사실은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가 함께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남한의 강단사학자들만 사료적 근거도 없이 『삼국유사』·『삼국사기』를 가짜라면서 가야는 서기 3세기에나

26) 위의 책, '파사이사금' 17년 조, “加耶人襲南鄙. 遣加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 率勇士五千, 出戰敗之, 虜獲甚多.”

27) 위의 책, '파사이사금' 18년 조, “舉兵欲伐加耶, 其國主遣使請(謝)罪, 乃止.”

28) 위의 책, '파사이사금' 23년 조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謂, “金官國首露王, 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건국했다고 우기고 있다.

다음으로 고고학 사료를 살펴보자. 고고학 사료로 국가의 존재를 파악하는 수단은 계급의 발생과 철기의 사용 여부 등이다. 계급의 발생은 지배층 무덤의 존재로 알 수 있는데 김해 대성동에는 서기 1세기 이전의 가야 고분들이 존재한다. 또한 남한 강단사학계도 서기전 1세기 초에 철기가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기 1세기 무렵부터 신라토기와 다른 가야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²⁹⁾

문헌사료는 물론 서기 1세기에 가야가 건국되었다는 고고학 유적·유물들도 차고 넘친다. 그러나 남한 강단사학은 3세기에야 12개의 소국이 성립되기 시작했다고 우긴다. 말은 실증사학이라면서 문헌과 고고학이라는 실증도 부인하고, 사료 없는 우기기가 횡행하는 것이다.

3. 북한은 가야 건국을 어떻게 보나

그럼 북한학계는 가야건국 시기를 어떻게 보나? 먼저 일제가 한국을 점령하기 전에는 1세기 가야건국설을 부인하는 학자는 없었다는 점을 먼저 부기해야겠다. 조선 후기 안정복(安鼎福:1712~1791)은 『동사강목(東史綱目)』 「도(圖)」의 '부(附)가락국'조에서 “한 광무제 임인년(42) 개국하여 양(梁) 무제(武帝) 임자년(532)에 멸망했는데, 열 명의 왕에게 전해주었고 역년은 491년이다”³⁰⁾고 적었다. 안정복은 ‘대가야’에 대해서는 대가야국의 시조는 이진아시(伊珍阿鼓)왕이라면서 “대가야국은 지금 고령에 있었는데, 한 광무제 임인년(42)에 개국해서 진 문제 임오년(562)에 망했는데, 열여섯 명의 왕에게 전해주었고, 역년은 531년이다”³¹⁾라

29) 안춘배, 『가야토기와 그 영역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1994.

30) 안정복, 『동사강목(東史綱目)』 「도(圖) 상(上)」, “駕洛國, 今金海, 起漢光武建武壬寅亡于梁武帝壬子傳世十君歷年四百九十一年”

31) 위의 책, 『도(圖) 상(上)』, “大伽倻國, 今高靈, 起漢光武建武壬寅亡于陳文壬午傳世十六歷年五百三十一年” “四百九十一年”

고 적었다. 이진아시왕은 『삼국사기』 「지리지」 '신라 고령군' 조에 나온다.

“고령군(高靈郡)은 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이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鼓王)－
한편 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이른다－에서 도설지왕(道設智王)까지 모두
16대 520년 이어졌던 곳이다. 진흥왕(眞興王)이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하였다.”³²⁾

『삼국사기』의 이런 대가야사 인식은 『고려사』 편찬자들도 그대로 받아들여 『고
려사』 「지리지」 ‘경상도 고령군’ 조에 거의 그대로 전재되었다.³³⁾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점하기 전에는 삼국과 고려, 조선의 그 어느 학자도 가락국과 대가야
국이 서기 42년에 건국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남한 강단사학계는 조선사편수회 출신의 이병도·신석호가 남한 학계를 장악
하면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추종한 반면 북한 역사학계는 일
제 식민사학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³⁴⁾ 그래서 북한 학계의 고대사 인식은 일찍
이 일제 식민사학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학계는 가
야의 건국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북한학자 조희승은 『조선단대사』 2권 「진
국, 가야편」의 '가야사개관'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가야는 진국의 변한지역에서 B,C 1세기 말엽에 봉건소국으로 형성되었다가 1
세기 중엽에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되었다…B,C 1세기경의 가야소국의 실태는

32) 『삼국사기』 「지리지」 '신라 고령군' “高靈郡, 本大加耶國, 自始祖伊珍阿鼓王[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 眞興大王侵滅之, 以其地爲大加耶郡.”

33) 『고려사』 「지리지 2」 '경상도 경산부 고령군', “高靈郡本大伽倻國, 自始祖伊珍阿鼓王[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 爲大伽倻郡.”

34) 광복 직후 북한 역사학계의 일제 식민사학 극복 노력에 대해서는 필자가 북한학자 리지린의 북경대 박사학위 논문인 『고조선연구』를 번역하고 해제한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의 해제에서 자세하게 서술했다. 리지린 지음, 이덕일 해역, 『리지린의 고조선연구』 2018, 말, 6~25쪽.

의창(경상남도 창원) 다호리 1호무덤을 비롯하여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옛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는 김해 일대에서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B.C 1세기경에는 가야(구야) 봉건소국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게 한다…1세기 초엽경에 김수로를 우두머리로 하는 집단이 북쪽에서 내려와 가야(구야)땅을 비롯한 몇몇 소국들에 와서 이미 있던 지배세력과 타협, 결탁하여 지배권을 확립하였으며 1세기 중엽경에는 금관가야(김해가야)를 중심으로 가야봉건국가들의 련맹체(6가야)가 형성되었다.”³⁵⁾

북한학계는 서기전 1세기 말경에 봉건소국이 형성되었다가 1세기 초엽 경에 북방에서 온 김수로왕이 기존의 지배세력과 타협해서 지배권을 확립했고 1세기 중반 경에 가야연맹체를 형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학계는 또한 고고학적 근거를 가지고도 가야가 1세기에 건국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가야의 기본 묘제는 수혈식석곽묘(竪穴式石槨墓)인데, 북한 학계는 수혈식돌곽(돌칸)무덤이라고 부른다. 북한학계는 “부산 오륜대무덤때는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3세기경까지 축조된 것인데 수혈식돌칸무덤 28기, 고인돌무덤 1기, 독무덤 1기로서 나무관무덤은 단 한기도 없다”³⁶⁾고 말하고 있다. 기원전후한 시기에 이미 가야소국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다. 조희승은 “B.C. 1세기경에 이미 가야소국이 있었다는 것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³⁷⁾면서 “B.C. 1세기경의 가야지역을 대표하는 유적은 창원 다호리유적(1호무덤)이다”³⁸⁾라고 설명하면서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쇠도끼 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35) 조희승, 『조선단대사(가야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5쪽. 이 책은 2020년 『북한학계의 가야사연구(말)』라는 제목으로 서울에서 다시 출간되었다. 필자가 이 책 끝머리에 〈남북한 가야사 연구의 현격한 차이〉라는 제목으로 해설을 붙였다(407~432쪽)

36) 위의 책, 15쪽.

37) 위의 책, 19쪽.

38) 위의 책, 19쪽.

“다호리 1호무덤의 유물들 가운데서 주목할만 한 것은 쇠도끼를 비롯한 각종 철기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다호리유적에서 이와 같은 쇠도끼와 쇠괘이 등 많은 량의 철제품이 나왔다는 것은 이 무덤이 축조되던 시기가 철기가 널리 보급되던 시기였고 농업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유적으로 보게 되는 생산력과 문화발전수준은 이 지역에서 봉건적생산관계의 존재를 시사해준다.”³⁹⁾

북한학계는 『삼국유사』·『삼국사기』 등의 문헌사료와 각종 고고학적 유적·유물들을 근거로 가야가 서기 1세기 중반 건국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남한 지역에서 발굴되거나 출토된 각종 고고학 유적·유물에 대해서 북한학계는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봐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는데 비해서 남한 강단사학계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서술이 대부분이다. 서론과 본론이 다른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표1〉 가야 건국에 대한 남북한 학계의 인식

	남한 강단사학계	북한 역사학계
가야 소국 형성시기	서기 2세기경	서기전 1세기경
가야 건국시기	3세기 이후	서기 1세기
가야연맹체 형성시기	3세기 이후	서기 1세기

아무런 사료적 근거나 고고학적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가야 건국시기를 서기 3세기 이후로 끌어내리는 남한 강단사학계의 역사해석은 사료로 설명한다는 기초적인 역사학적 방법론에서도 크게 벗어난다. 반면 북한학계는 각종 문헌사료와 가야 각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가지고 가야가 서기 1세기에 건국되었

39) 위의 책, 20쪽.

음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극우파 역사학자들과 남한 강단사학계가 사료가 말하는 가야 건국 시기를 부정하는 이유는 임나일본부설 때문이다. 임나일본부설은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군 참모본부와 일본의 국학자들과 식민사학자들이 주창한 것인데, 고대 야마토왜[大和倭]가 369년부터 562년까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국사기』·『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가야는 야마토왜에 정복된 적이 없다. 『삼국사기』·『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가야는 야마토왜에 점령될 정도로 나약한 왕조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은 『삼국사기』·『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가야사를 부정하고, 연대부터 맞지 않는 『일본서기』만을 신봉해서 임나일본부설을 주창하는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의 핵심골자는 가야가 곧 임나라는 ‘가야=임나설’인데, 남한 강단사학계는 총론, 서론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본론, 각론에 들어가면 “임나는 가야다”라고 모순된 주장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4. 가야는 임나인가?

『미완의 문명, 700년』을 쓴 가야사 연구가인 홍익대 김태식 교수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임나는 가야의 별칭”⁴⁰⁾이라고 말했다. 임나(任那)는 일본어로 미마나로 읽는데, 강단사학의 가야사 연구자들 대부분은 ‘가야=임나’라고 주장한다. 그럼 그 근거사료는 무엇일까? 김태식의 다음 기술을 보자.

“그러므로 비교적 신빙성이 인정되는 전자의 다수 용례를 중심으로 볼 때, 임나는 6세기의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나 백제에 복속되어 있지 않은 소국들의 총칭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는

40) 『중앙일보』, 2017년 6월 8일 자.

당시의 가야 소국들이 신라나 백제와 구분되는 하나의 세력권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의 반영이며, 그 임나를 왜 측에서 친근하게 여긴 것은 이들과의 빈번한 교역 경험과 관련된 것이다. 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6세기의 후기 가야 연맹을, 왜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⁴¹⁾

김태식은 “무슨 이유에선가” 5~6세기의 가야 연맹을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김태식의 “왜에서는”이라는 말은 “『일본서기』에서는”이라는 뜻인데, 정작 『일본서기』에서 가야를 왜라고 부른 용례는 나오지 않는다. 고대 한일관계사 분야에서 300여편의 학술논문과 30여권의 학술저서를 출간한 고려대 고 최재석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역사 조작에 방해가 되는 《삼국사기》·《삼국유사》는 조작으로 몰고,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함이 없이 말로만 가야와 임나는 동일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야와 미마나가 전혀 별개의 나라라는 증거는 있을지언정 같은 나라라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⁴²⁾

최재석 교수는 또 “이러한 일본인들의 주장에 어찌하여 한국 사학자들도 모조건 동조하며 가야와 미마나(임나)가 동일국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⁴³⁾ 라고 비판하고 있다.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총론으로는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고 자찬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임나는 가야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지극껏 추종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삼국

41)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 푸른역사, 2002, 66-67쪽

42)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10, 143쪽.

43) 위의 책, 143쪽.

사기』·『삼국유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측 기록인 『일본서기』에도 가야를 임나라고 표현한 기사는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최재석 교수의 비판은 이런 의문을 제기한다.

“또 일본인들은 가야와 임나의 관계에 대하여 논할 때는 보통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일본이 가야를 지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또 어찌하여 한국의 고대사학자들은 후자인 일본이 가야(한국)를 지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지키면서 전자인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대목에만 관심을 가져 이것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44)

최재석 교수가 지적한 이 모순점은 총론과 각론이 다른 남한 강단사학자들의 모순을 그대로 지적하는 것이다.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임나=가야”라고 주장하고, “임나가 가야의 별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나오는 ‘가야’가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와 같은 나라라는 뜻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가야’가 『일본서기』의 ‘임나’와 같은 정치세력이라면 몇 가지 핵심적인 사실들이 일치해야 한다. 개국 및 멸망연대가 일치해야 하고, 개국시조와 망국시조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나라가 있었던 지리적 위치도 일치해야 한다. 과연 그런지 <표> 2을 살펴보자.

44) 위의 책, 143쪽.

〈표2〉

	가 야	임 나	비 고
개국연대	서기 42년 (『삼국유사』 「가락국기」)	모름(서기전 33년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나옴: 『일본서기』 송신(崇神) 65년조)	
망국연대	532년(금관가야), 562년(대가야)	모름(『일본서기』 대화(大化) 2년(646)조에는 서기 646년에도 임나가 존속하는 것으로 나옴)	
개국시조	김수로왕(금관가야), 이진아시왕(대가야)	모름	
망국시조	구형왕(금관가야), 도설지왕(대가야)	모름	
위치	김해(금관가야), 고령(대가야)	임나는 축자국(북규슈)에서 2천여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 서남쪽에 있다(『일본서기』 송신 65년조)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는 곳이 가야가 될 수 없다.
결론	모든 것이 다르므로 가야는 임나가 아니다.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가야와 『일본서기』의 임나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 개국연대도 멸망연대도 다르고, 개국시조도, 망국시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다. 최재석 교수가 “가야와 미마나(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함이 없이 말로만 가야와 임나는 동일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⁵⁾ 고 비판한 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일본인 학자들은 야마토왜가 가야를 점령해 임나일본부를 설치했으니 근대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고대사의 복원’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임나일본부설을 주

45) 위의 책, 143쪽.

장했다. 광복 75주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서 ‘가야=임나’라고 주장하는 한국인 강단사학자들이야말로 의문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5. 고구려, 백제 불교전래 기사의 의문점들

우리나라 각급 학교에서는 모두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2년조에 “진(秦)왕 부견(符堅)이 사신과 부도(浮屠:승려) 순도(順道)를 통해 불상과 경문(經文)을 보내주었다. 왕이 사신을 보내 사례하고 고구려의 토산물을 전했다.”⁴⁶⁾ 라는 기록을 근거로 삼은 내용이다. 이때의 진(秦)은 서기 350년 저족(氐族)인 부흥(符洪)이 세운 나라로서 보통 전진(前秦)이라고 부른다. 소수림왕은 재위 4년(374)에 승려 아도(阿道)가 오자 그 이듬해 봄 2월 초문사(肖門寺)를 세워 순도를 주석하게 하고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세워 아도를 주석하게 했는데, 김부식은 “이것이 해동불법의 시작이었다”라고 덧붙였다.⁴⁷⁾ ‘해동불법의 시작’이라는 말은 국가에서 사찰을 세운 첫 기록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梁)나라 승려 혜교(慧皎)가 후한(後漢) 영평(永平) 10년(67)부터 남조(南朝) 양(梁) 천감(天監) 18년(519)까지 453년간의 승려 257명에 대해 기록한 『양고승전(梁高僧傳)』을 보면 고구려인들이 소수림왕 2년(372)에 처음 불교를 접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양고승전』은 의해(義解)에 밝은 14명의 승려를 실으면서 그 중에 동진(東晉)의 승려 지둔(支遁:314~366)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가 고려도인(高麗道人)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둔은 하남

46)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2년. “夏六月, 秦王符堅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迴謝, 以貢方物.”

47) 위의 책,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5년. “春二月, 始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海東佛法之始.”

성 개봉(開封) 출신으로 스물다섯 살에 출가해서 현재 소주(蘇州)시 서쪽 교외의 지형산(支硎山)과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소흥(紹興) 신창(新昌)일대인 섬현(剡縣)에서 주석했던 승려로서 전진의 승려 순도가 고구려에 도착하기 전인 366년에 세상을 떠났다.⁴⁸⁾ 그가 생전에 고려도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고려도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진의 저명한 승려 지둔과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웠으니 불교에 대해서 알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순도가 오기 이전에 고구려에 이미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준다.

백제의 불교전래 기사도 마찬가지다. 『삼국사기』는 백제 침류왕 1년(384) 9월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진(晉)나라에서 오자 “침류왕이 영접하고 궁중으로 맞아들여 예로써 공경했는데, (백제의) 불법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⁴⁹⁾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기사는 고구려의 불교전래 기사와도 다르다. 고구려는 진왕 부견이 사신과 함께 순도를 보냈으니 나라 사이 외교행위의 하나였다. 그러나 호승 마라난타는 사신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백제에 온 것이다. 호승은 중국인과 모습이 다른 인종을 뜻하는데 인도 출신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도 출신이 진나라를 거쳐 백제에 온 것이다. 『삼국사기』의 이 기사는 마라난타가 개인자격으로 왔는데 침류왕이 마치 오랜 지인이라도 찾아온 것처럼 궁중으로 영접하고 예로 대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는 이듬해 봄 2월에 한산(漢山)에 절을 창건하고, 승려 10명에게 도첩을 주었다고 말한다.⁵⁰⁾ 도첩(度牒)은 나라에서 발급하는 승려증명서인데, 9월에 백제에 온 마라난타는 불과 5개월 사이에 사찰을 세우고 승려를 교육시켜 국가로부터 도첩까지 받아냈다. 침류왕이 불교에 대해서 몰랐다면 마라난타를 궁중으로 맞아들이고 다섯 달 후에 사찰을 세워 승려들에게 도첩을 준다는 자체가 불가

48) 지둔의 생애에 대해서는 『백도백과(百度百科)』 「支遁(東晉高僧)」조를 참조해 작성했다.

49) 『삼국사기』 「백제본기」 침류왕 원년, “九月, 胡僧摩羅難陀自晉至, 王迎之, 致宮內禮敬焉. 佛法始於此.”

50) 위의 책, 「백제본기」 침류왕 2년, “春二月,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때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 《양고승전》에 후한 명제 영평(永平) 10년(67)의 승려들에 관한 기록들이 있으니 1세기 때인 후한 명제(明帝:재위 27~75) 때는 이미 들어온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지 300여년 후에야 고구려·백제에 전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국사기』의 불교전래 기록은 두 나라 왕실에서 이미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큼을 말해준다. 따라서 소수림왕 2년(372)과 침류왕 1년(384)의 불교전래 기록은 두 나라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시기가 아니라 왕실에서 불교를 공인한 시기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6. 가야 불교 전래시기

앞서 살펴본대로 『삼국유사』 「가락국기」 ‘질지왕’ 조에 “세조모 허황후를 위해서 원가(元嘉) 29년(452)에 김수로왕과 허황후가 혼인한 곳에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왕후사(王后寺)라고 했다는 기록”⁵¹⁾은 가야에 불교가 전래된 기록이 아니다. 이는 가야 왕실에서 시조와 시조모를 위해 왕후사라는 왕실사찰을 세웠다는 기록이다. 『삼국유사』에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가야에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기사가 여럿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중 하나가 『삼국유사』 「금관성 파사석탑」조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금관 호계사(虎溪寺) 파사석탑(婆娑石塔)은 옛날에 이 읍(김해)이 금관국이었을 때 시조 수로왕의 비인 허황후 황옥이 동한(東漢) 건무(建武) 24년(48)에 서역의 아유타국(阿踰陁國)에서 싣고 온 것이다.”⁵²⁾

51) 『삼국유사』 「가락국기」, ‘질지왕’ 조 “一云金銍王, 元嘉二十八年即位, 明年爲世祖許黃玉王后奉資冥福, 於初與世祖合御之地創寺曰王后寺”

52) 『삼국유사』 「금관성파사석탑(金官城婆娑石塔)」, “金官虎溪寺婆娑石塔者昔此邑爲金官國時, 世祖首露王之妃許皇后名黃玉, 以東漢建武二十四年甲申, 自西域阿踰陁國所載來, 福, 於初與世祖合御之地創寺曰王后寺”

『삼국유사』 「금관성 파사석탑」조는 허왕후가 가야에 오려고 하다가 파도신에 막혀 되돌아가 부왕에게 말하자 이 탑을 신고 가라고 명해서 쉽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기사는 허왕후의 가야도착과 관련한 구체적 지명들을 기록하고 있다. 고려 때에도 허왕후의 배가 정박한 곳을 주포(主浦), 언덕 위에 비단바지를 벗은 곳을 룡현(陵峴), 붉은 깃발이 처음 들어온 해안을 기출변(旗出邊)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고려 때까지도 김해 사람들은 허왕후가 도착한 각 지역을 신성시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일연은 “그러나 이때까지 해동에는 아직 절을 세워서 불법을 받든 일이 없었다. 대개 불교가 아직 이르지 못해서 토착인들이 신복하지 않았으므로 본기에는 절을 세웠다는 기록이 없다.”⁵³⁾ 고 덧붙였다. 이 말은 「가락국기」에 사찰을 세운 기록이 없다는 뜻으로 왕실에서 정식으로 사찰을 창건한 기록이 없다는 뜻이지 질지왕 때인 452년에 가야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는 뜻은 아니다.

가야 불교전래 시기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료들이 여럿 있다. 그중 하나가 신라의 지식인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이 쓴 「지증대사탑비(智證大師塔碑: 보물 138호)」로서 신라 경애왕 원년(924년)에 세운 것이다. 경북 문경시 가은면(加恩面) 원북리(院北里) 봉암사(鳳巖寺)에 있는 비로써 봉암사를 창건한 지증대사의 공적을 찬양한 부도탑비이다. 지증대사는 속성이 김씨로써 헌덕왕 16년(824)에 태어나 17세에 부석사에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다. 그는 신라 말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사자산문(獅子山門)을 계승해서 봉암사를 세웠는데, 헌강왕 8년(882)에 59세 때 법랍 42세로 입적하자 나라에서 지증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 <지증대사탑비>는 이 땅에 전래된 것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기사를 남기고 있다.

53) 위의 책, 「금관성파사석탑」, “然于時海東未有創寺奉法之事。蓋像教未至而土人不信伏。故本記無創寺之文”

“나라를 가지고 나라를 살피고, 고을을 가지고 고을을 살펴보면 불교의 바람이 사막과 험준한 고개를 넘어서 지나서 오고, 그 파도가 바다 모퉁이에 미치기 시작했다.”⁵⁴⁾

이 문장의 ‘바다 모퉁이[海隅:해우]’에 대해 이 답비를 판독한 불교학자 남동신(南東信)은 신라를 뜻하기도 하고 이 땅을 뜻하기도 한다고 주석했다.⁵⁵⁾이 문장은 불교가 두 길로 이 땅에 전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나는 사막과 산맥을 거쳐서 온 대륙불교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를 거쳐 온 해양불교다. 사막과 산맥을 거쳐 신라에 온 대륙불교가 대승불교라면 바다를 거쳐 신라에 온 해양불교는 곧 소승불교를 뜻할 것이다. 최치원은 「지증대사탑비」에서 대승 및 소승불교가 들어온 순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그 교(불교)가 일어나는데 비파사(毗婆娑)가 먼저 이르렀으니 곧 사군(四郡)으로 사체(四諦)의 바퀴가 달렸고, 마하연(摩訶衍)이 뒤에 이르니 한 나라에 일승(一乘)의 거울이 빛났다.”⁵⁶⁾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진 순서는 비파사(毗婆娑)가 먼저이고 마하연(摩訶衍)이 나중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비파사는 불교학자 남동신도 소승불교로 해석하고 있다.⁵⁷⁾ 마하연은 고대 인도어 마하야나(Mahā-yāna)의 음역으로 대승불교를 가리키는데 남동신도 마찬가지로 해석했다.⁵⁸⁾

54) 『한국고대금석문』,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塔碑)」, “就以國觀國考從鄉至鄉, 則風傳沙嶮而來 波及海隅之始”

55) 위의 책,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남동신(南東信) 주석, 44번.

56) 위의 책,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其教之興也, 毗婆娑先至則四郡 驅四諦之輪, 摩訶衍後來 則一國耀一乘之鏡.”

57) 위의 책,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남동신(南東信) 주석, 76번.

58) 위의 책,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남동신(南東信) 주석, 79번.

여기에서 사군(四郡)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불교학자 남동신은 신라·고구려·백제의 삼국으로 해석했다.⁵⁹⁾ 소승불교가 먼저 들어왔고, 그보다 늦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대승불교가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것은 대승불교 전래기사로서 왕실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사찰을 세웠다는 기사이다. 「지증대사탑비」에서 최치원은 소승불교가 먼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서기 48년 허왕후가 아유타국에서 파사석탑을 신고 왔다고 단정 짓고 있는데 이 기사의 신빙성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아유타국에서 파사석탑을 신고 올 정도로 불심이 깊었던 허왕후가 이 파사석탑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찰을 세웠을 것임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삼국유사』에서 토인으로 표현한 현지 가야인들과 신앙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왕실차원에서 정식 사찰을 세우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소승불교의 전래가능성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료가 고려 문신 민지(閔漬:1248~1326)가 쓴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金剛山楡岾寺史蹟記)」이다.⁶⁰⁾ 신라 제5대 ‘파사이사금(재위 80~112)’의 파사는 ‘스님’, ‘승려’라는 뜻이니 파사이사금은 불교식 왕호다.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는 ‘고려국 평장사 여흥부원군 시호 문인공(文仁公) 민지 지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⁶¹⁾ 평장사(平章事)는 중서문하성의 정2품 고위직이다. 민지는 고려 원종 때 장원급제해서 벼슬에 나온 후 충렬왕 21년(1295) 밀직학사(密直學士), 충렬왕 25년(1299) 동수국사(同修國史)를 역임했으니 역사학에 밝은 벼슬아치였다.⁶²⁾ 고려는 중1품 시중(侍中)이 감수국사(監

59) 위의 책,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남동신(南東信) 주석, 77면.

60)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에 대해서는 김민구, 「閔漬와 楡岾寺 五十三佛의 成立」, 『불교학보』 55집, 2001년과 정수일, 『문명교류사연구』, 세계절, 2002년, 엄중섭,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의 연기설화 검토 -황룡사장육존상(皇龍寺丈六尊像) 설화와 오대산(五臺山) 문수신앙(文殊信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3권, 2017년 9월호를 참조할 수 있다.

61)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 ‘高麗國平章事驪興府院君諡文仁公閔漬撰’

62) 閔漬의 생애에 대해서는 《高麗史》 〈민지(閔漬)열전〉과 이제현(李齊賢)이 쓴 〈有元高麗國推誠守定保理功臣三重大匡判僉議府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上護軍驪興府院君贈諡文仁閔公墓誌銘并序〉를 참조할 수 있다.

修國史)를 맡고, 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 고위관료들이 수국사(修國史)·동수국사(同修國史)를 맡아 국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했다. 그 아래 역사편찬기구인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은 한림원(翰林院)의 정3품 이하 관원이 겸직했다. 그 아래 직사관(直史館)이 역사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직인데, 7~9품 4인으로 구성되었다. 감수국사·수국사·동수국사·수찬관은 당연히 역사에 밝은 벼슬 아치가 겸임하게 되어 있었고,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를 쓴 민지는 동수국사를 역임했으니 당연히 역사에 밝았다. 민지는 지금은 전하지 않는 『신라고기(新羅古記)』를 주요 근거의 하나로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를 쓰고 있다. 『신라고기』는 언제 편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두 책보다 먼저 간행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⁶³⁾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는 금강산 유점사(楡岾寺) 창건 연기(緣起)를 기록한 글인데, 유점사란 느릅나무(楡) 고개(岾)에 있는 절(寺)이란 뜻이다. 고려의 동수국사 민지가 쓴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가 중요한 것은 신라의 불교 전래에 대해서 『삼국사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중은 바다를 떠가며 여러 나라를 거쳐 금강산 동쪽의 안창현(安昌縣) 포구에 닿았는데, 이때는 곧 신라 제2대 남해왕(南解王) 원년, 즉 한나라 평제(平帝) 원시(元始) 4년(기원후 4년)이었다.”⁶⁴⁾

고려 사관 민지는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에서 『신라고기』를 인용해 신라에 불

63) 『신라고기(新羅古記)』라는 직접적 이름은 『삼국사기』 「잡지(雜志)」의 악(樂)에서 진(晉)나라에서 고구려에 보낸 거문고[玄琴]와 관련한 내용과 가야국 가실왕이 가야금을 만들고 우륵이 곡을 지었다는 내용에 나온다. 『삼국유사』에는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고기』라는 이름으로는 더 많은 기사가 나온다.

64)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 “鍾既泛海歷盡諸國來至于是山東面安昌縣浦口 時則新羅第二主南解王元年 卽前韓平帝元始四年甲子也” 이 논문에 사용한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이다. 앞 문장의 前韓은 前漢의 오기이다.

교가 처음 전래된 시기를 신라 제2대 남해왕 원년(서기 4)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김부식(金富軾:1075~1151)이 『삼국사기』에서 고구려에 처음 불교가 전해진 것은 소수림왕 2년(372)이라고 쓴 것보다 368년 전이다.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는 석가가 열반한 후 문수보살이 사람들을 시켜 53개의 불상을 주조하게 한 후 종에 넣어 바다에 띄웠는데, 혁치(赫熾)가 왕으로 있던 월지국(月氏國)에 도착했다가 다시 “여러 나라를 거쳐 금강산 동쪽의 안창현(安昌縣) 포구에 닿았는데, 이때가 신라 남해왕(南解王) 원년”이라는 것이다. 고려 동수국사 민지가 『삼국사기』를 보지 못했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신라고기』를 근거로 서기 4년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쓴 것이다.

불상을 담은 종이 도착한 금강산 동쪽의 안창현(安昌縣)에 대해서 『고려사』 「지리지」 '동계(東界)' 조는 “안창현은 본래 막이현(莫伊縣)인데, 현종 9년(1018)에 지금 이름(안창)으로 부르고 <고성현에> 내속(來屬)시켰다.”⁶⁵⁾라고 말하고 있다. 불상을 실은 종이 강원도 북부 고성현 지역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는 현 사람이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고성현의 관리에게 말했더니 고성현령 노춘(盧椿)이 이를 듣고 관리와 노비를 이끌고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다. 민지는 『신라고기』의 기사와 자신이 직접 답사한 경험을 섞어서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를 썼는데 이 종 및 불상과 관련된 지명이 고려 때 금강산 곳곳에 남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민지는 “금강산을 향해 30리쯤 가보니 풀을 깔아 종을 두고 쉬어간 자리의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 그곳을 지금은 계방(憩房)이나 소방(消房)이라고 부른다.”⁶⁶⁾고 말했다. 종을 두고 쉬어갔던 자리를 ‘쉬던 곳’이라는 뜻의 계방이나 소방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또 문수촌(文殊村)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문수보살이 비구의 몸으로 나타나서 불상이란 곳을 알려준 곳이라는 것이다. 문수촌에서 천여 보를 더 가면 우뚝 솟아 있는

65) 『고려사』 「지리지」 3. '동계' 고성현, 안창현, “安昌縣本莫伊縣, 顯宗九年, 稱今名, 來屬.”

66)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 “望是山而行三十里許, 乃見盤跡藉草置鍾憩息之所, 今云憩房或云消房者是也”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앞 돌에 비구니 한 명이 걸터앉아 있다가 불상이 서쪽으로 갔다고 말하고 사라졌는데, 이 비구니가 문수보살의 화신(化身)이었다면서 그 바위를 ‘비구니가 놀던 바위’라는 뜻의 니유암(尼遊巖) 또는 니대(尼臺)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니유암 앞으로 가면서 만인봉(萬仞峰) 앞에서 길을 돌리려 하자 백구(白狗)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꼬리를 흔들면서 길을 인도했는데, 이를 ‘개 고개’라는 뜻의 구령(狗嶺)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고개를 넘으려다가 목이 말라서 방향을 바꾸자 연못이 나타났는데, 이 연못을 고성태수의 이름을 따서 노춘정(盧椿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민지는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에서 불상과 종이 가는 곳마다 이적(異蹟)이 나타났다면, 노루를 본 곳은 장항(獐項:노루목)이고, 종소리를 들은 곳은 환희령(歡喜嶺)이라고 말했다. 민지는 “종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작은 고개를 넘자 한 골짜기가 나타났고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가운데 큰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느릅나무의 가지에 종이 걸려 있었고, 불상은 연못가에 가지런히 늘어놓아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 기이한 향기가 풍기고 상서로운 구름이 고운 빛깔로 날아갔는데, 노춘과 관속(官屬)은 기뻐지만 자만하지 않고 극진하게 우러르며 경례하고 돌아가 이 일을 국왕에게 아뢰었다”는 것이다. “남해왕은 경이롭게 여겨서 가마를 타고 행차해서 (불가)에 귀의하고, 그 땅에 절을 지어서 종과 불상을 안치했는데, 느릅나무로 때문에 절의 이름을 유점사로 삼았다”는 것이다.

민지가 말하는 이런 지명들은 고려 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남아 있던 지명들이었다. 조선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강원도 고성군」조의 ‘불우(佛宇)’편에서 가장 먼저 유점사를 실으면서 민지의 기사를 요약해서 실었다.⁶⁷⁾ 많은 유학자들이 유점사에 가서 보고 기록을 남겼으나 대부분 불교를 폄하하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묘사했지만 조선 중기의 학자 동주(東州) 이민구(李敏

67)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5권 「강원도 고성군」 '불우(佛宇)' 유점사

求:1589~1670)는 유점사를 답사하고 「노춘정(盧椿井)」이라는 시를 썼다.⁶⁸⁾

조선 후기의 학자 서종화(徐宗華:1700~1748)는 「노춘사(盧椿祠)」라는 시를 썼다.⁶⁹⁾ 노춘정이 고성태수 노춘을 기리는 우물이라면 노춘사는 그를 기리는 사당이다. 서종화는 이 시에서 “내가 유점사에 갔더니/불우(佛宇)가 어찌나 휘황한지/그 동쪽 작은 전각이 있고/그 안에 한 소상(塑像:찰흙으로 만든 상)이 있는데/승려도 아니고 도사도 아닌데/이마 위에 오모(烏帽:검은 모자)를 쓰고 있네...”⁷⁰⁾라고 시작하고 있다. 서종화는 유점사의 승려에게 누구의 소상이냐고 물었더니 승려가 “고성군수인데/이름은 춘(椿)이고 노(盧)는 성”이라면서 53개의 금불(金佛)이 종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금강산에 들어왔을 때 태수가 노춘이었다고 대답했다고 썼다.⁷¹⁾ 서종화는 “그대는 이를 불신하지 말라/옛 기록을 지금도 완상할 수 있다”면서 “노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하나 모두 어그러지지 않으며, 고려의 민거사(閔居士:민지)가 글을 지어 증명했다”⁷²⁾고 말하고 있다. 신라 남해왕 때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이다. 서종화는 중종반정 이후 쫓겨난 중종의 원 부인 신씨(愼氏)를 복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비복위수의(愼妃復位收議)」를 쓴 유학자임에도 민지의 글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고려의 동수국사 민지는 『신라고기』를 근거로 신라 2대 임금 남해왕 즉위 원년(서기 4) 불교가 들어왔으며 남해왕이 같은 해 금강산 유점사를 창건했다고 썼다. 『신라고기』를 인용한 민지의 설명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신라 제5대 임금이 불교식 왕호인 파사왕(婆娑王:재위 80~112)인 것이 이해가 간다. 파사왕은 3대

68) 『동주집(東州集)』, 전집 제6권, 「동유록(東游錄) 노춘정(盧椿井)」

69) 『약헌유집(藥軒遺集)』 「노춘사(盧椿祠)」

70) 위의 책, 「노춘사」, “我來楡店寺, 佛宇何輝晃, 迤東架小閣, 中有一塑像, 非僧亦非道, 烏帽在其顛”

71) 위의 책, 「노춘사」, “僧言高城守, 名椿盧是姓, 五十三金佛, 聞昔來葱嶺, 乘鍾渡海水, 曳鍾入山嶂, 于時盧太守.”

72) 위의 책, 「노춘사」, “君如不信之, 古記今可賞, 携來一鐵卷, 十襲藏錦纈, 中言盧椿事, 一一皆不爽, 高麗閔居士, 作文以爲證.”

유리왕(재위 24~57)의 아들이자 남해왕(재위 4~24)의 손자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금강산 유점사를 창건했다면 그 손자가 불교식 왕호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한국불교사를 해석할 때는 두 가지 암초가 있다. 하나는 조선의 유학자들이 불교를 폄하하는 관점에서 불교에 관한 기록을 깎아내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한국사의 공간과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되도록 이른 시기의 기록을 가짜로 몰아붙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그릇된 관점을 제거하고 가야사 및 가야·신라불교전래사를 바라보면 신라 남해왕 때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것이나 허왕후가 파사석탑을 가져왔다는 기사를 불신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7. 나가는 글

가야사는 일본인들의 임나일본부설과 연관되어 많은 수난을 겪어왔다. 가야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많은 왜곡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과 아직까지도 그들의 학문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가야의 서기 1세기 건국설을 부인하고 3세기 건국설로 대체했다. 『삼국사기』·『삼국유사』 및 옛 가야지역의 여러 유적·유물들이 서기 1세기 가야건국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식민사학자들과 한국 강단사학자들은 연대조차 맞지 않는 『일본서기』만을 신봉해 이를 불신해왔다.

한국고대사에 대한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임에도 남아 있는 사료를 무조건 부정하는 비역사학적 방법론이 아직도 한국 강단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세계 사학계의 수수께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라 5대 임금 파사이시금(재위 80~112)은 불교식 왕호를 갖고 있음에도 그가 어떻게 불교식 왕호를 갖게 되었는지는 연구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1세

기에 가야에 불교가 전래되었음을 말하는 『삼국유사』 「금관성 파사석탑」조나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보다 먼저 전해졌다고 말하는 신라 말기 최치원의 「지증대사 탐비」의 가치는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려 동수국사 민지의 「금강산유점사사적기」는 신라 남해왕 원년(서기 4)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료가 그간 신라에 소승불교가 먼저 전해졌음을 말해주는 사료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은 불가사의하기까지 하다. 「금강산유점사사적기」는 파사이사금이 불교식 왕호를 갖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료라고 보아서 큰 오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야사 및 가야불교사 연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학자들의 사대주의 및 승유천불(崇儒賤佛) 관점과 일본인 식민사학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한국 강단사학의 식민사학적 관점, 즉 조선총독부 역사관의 그릇된 관점을 털어내고 사료에 바탕해서 역사를 바라보면 그간 가졌던 선입견의 틀을 깨는 새로운 역사를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야사 및 가야불교사가 그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 「지리지 2」, 「지리지 3」, 「민지(閔漬)열전」

『金剛山楡岾寺史蹟記』

『동사강목』

『동주집(東州集)』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약헌유집(藥軒遺集)』

『楡岾寺史蹟記』

『한국고대금석문』,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塔碑)」

김민구, 「閔漬와 楡岾寺 五十三佛의 成立」, 『불교학보』 55집, 2001.

김용선, 「박제상소고」, 『김해종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1979.

김태식, 「가야의 성립」, 『한국사 7: 삼국의 정치와 사회Ⅲ—신라·가야』, 국차편찬위원회,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 푸른역사, 2002.

리지린 지음, 이덕일 해역, 『리지린의 고조선연구』, 말, 2018.

안춘배, 「가야토기와 그 영역의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염중섭,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의 연기설화 검토 - 황룡사장육존상(皇龍寺丈六尊像) 설화
와 오대산(五臺山) 문수신앙(文殊信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3권, 2017

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이영식, 「加耶諸國의 國家形成 問題」, 『白山學報』 32, 1985.

정수일, 『문명교류사연구』, 사계절, 2002.

조희승, 『조선단대사(가야사)』,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백도백과(百度百科)』, ‘支遁(東晉高僧)’

『중앙일보』, 2017년 6월 8일

[Abstract]

For the new horizon in the recognition on the Gaya History and its Buddhism History

Lee, Deok-II

(Soonchunhyang University-Hangaram Institute for History & Culture)

The Gaya history in Korea is not properly recognized at present. Those who concentrated on the researches on Gaya history were the colonial historians in Japan during the resistance period against Japan. Those colonial historians investigated the Gaya history with the viewpoint that Gaya was the colony of the ancient Yamato dynasty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Imna Japanese Headquarters written in the “Chronicles of Japan” because there was no sufficient historical data on Gaya. After liberation from Japan, it’s not too much to say that Korean historians(South Korea) repeated the key logic of the theory of Imna Japanese Headquarters in terms of the contents while they generally pretended to criticize the theory of Imna Japanese Headquarters. However, the North Korea completely abolished the theory of Imna Japanese Headquarters both in terms of the contents and forms as Kim Seok-hyeong advocated the theory that Imna was the country built by Yamato Dynasty in Japan in 1963.

As a result, the recognition on Gaya histor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completely different. North Korean historians insisted that Gaya was founded in the 1st century BC on the basis of the ancient literature including “Legends and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Record of the State of Garak” and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a variety of archaeological remains

and heritages. On the contrary, South Korean historians pointed out that Gaya was founded in around the 3rd century BC.

Another important field in the research on Gaya history is Buddhism history of Gaya. It was understood that Buddhism was introduced in Gaya in 452 when Wanghusa Temple was built as recorded in “Legends and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Record of the State of Garak”. But it can be also analyzed that just a royal temple was built in Gaya but it didn’t mean that Buddhism was introduced in Gaya for the first time.

Bhasa stone pagoda, which the queen Heo brought when she came from Ayuta kingdom to Gaya in 48, demonstrated the error of viewpoint that Buddhism was introduced in Gaya in the mid-5th century. The records on Buddhism in Goguryeo and Baekje in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re about transfer history of Mahayana Buddhism. In accordance with the “Stone Monument of the Great Monk Jijeung” written by Choi Chi-won, it could be understood that Hinayana Buddhism was introduced in Korea earlier than Mahayana Buddhism.

The ancient records above indicated that it would be the time to fundamentally review the Gaya history of the past, in particular, the frame of Gaya history built by the colonial historians of Japan during the resistance period against Japan.

[Key Words] Founding Time of Gaya, Theory of Imna Japanese Headquarters, Theory that Imna was Gaya, Theory that Imna was the country built by Yamato Dynasty in Japan, Gaya Buddhism, Stone Monument of the Great Monk Jijeung

접수연월일: 2021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21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0일